전남도, '농촌협약' 사업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쾌거

순천·구례·해남·함평에 5년간 국비 1천200억 투입

농촌 정주 여건 개선·생활서비스 공급시설 확충 등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순천, 구례, 해남, 함평, 4개 시군이 확정돼 전국 최다 선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미래형 농촌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종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3년부터 착수하는 농촌협약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일반농산어촌지역 113개 시군 중 시·도 평가를 통과한 38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1개 시군을 확정했다.

심사 결과 시·도별로 전남과 충남, 경북이 각 4개 시군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3개 시군, 충북·전북 각 2개 시군, 경기강원 각 1개 시군이 선정됐다. 2020년 공모가 첫 시작한 후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개 시군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선정된 4개 시군은 연말까지 평가 시 제출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조정 작업을 거치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시군이 농촌협약을 한 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군별 국비 최대 300억 원 규모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사업이 추진되면 장기발전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20년)'과 실행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5년)'을 반영해 농촌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사회서비스·공동체 육성은 물론 농촌환경·농업유산·생태·경관 등 농촌다움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가 이번 공모에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된 데는 지난해보다 교육 및 컨설팅 강화를 위한 사업비 투자를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교육 및 컨설팅 계획을 수립해 중앙평가의 중요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계획서를 집중 보완하고, 전문가를 위촉해 10여 차례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해 계획서 내용의 질을 향상한 것이 한몫했다.

또한 시군은 공모 선정 전제 조건인 시군 전담부서 신설,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등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주민들도 큰 힘을 보탰다. 농촌협약 공모 필수요건인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민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다 선정을 이끌어 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이 2년 연속 최다 선정됐다"며 "이 사업이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공급시설 확충 등 결과를 극대화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5·18기록물 통합DB 구축 2차년도 사업 본격화

5·18기록관, 기관·단체 소장 기록물 DB화·시스템 개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이달부터 5·18기록물 통합DB 구축을 위한 2차년도 사업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3개년 사업으로 2020년 총 예산 90억원(국비 45억원)이 소요되는 통합DB 구축사업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차년도 사업을 통해 기록물 DB 구축 공정관리프로그램을 개발, 5·18기록물 분류 체계와 메타데이터 구축, 기록물 DB작업과 인공지능 문자식별(AI-OCR) 등을 진행했다.

특히 종이류 154만 여면, 시청각류 2411점을 일일이 DB화하고, 인공지능 문자식별(AI-OCR)은 3억 자(1억 여 단어)를 작업했다.

올해 2차년도 사업에서는 기록관과 유관기관의 비전자기록물을 정리하고 중요 기록물에 대한 DB작업을 진행하고 기록물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기록물 검색을 위한 시소러스와 전거레코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기록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기록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0301 인증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록관 뿐 아니라 5·18기록물을 소장중인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 들불열사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유관기관의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록관은 2차년도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달 30일, 기록관에서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기록물 통합 DB 대상 유관 기관단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악어디지털 컨소시엄, 알엠소프트, 비온시이베이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통합DB 구축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3차년에는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홍인화 관장은 "그동안 일부 유관 기관단체는 기록물 보존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록물 보존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5·18기록물 통합DB 구축이 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MZ세대 직원들과 도시락 오찬하는 광주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이 1일 오전 취임식을 마치고 시청 집무실에서 MZ세대 공직자들과 도시락 오찬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전남도, '축산악취 개선' 전국 최다 공모 선정…157억원 확보

영광·해남·영암·순천·화순·강진 등 6개 시·군 사업추진

전남도가 전국 최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6개 시·군과 함께 고질적인 축산악취 개선에 나선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에서 6개 시·군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 사업은 축산농가에 필요한 퇴비사와 액비저장조, 정화방류시설, 액비순환시스템, 악취저감시설, 축분급속 발효시설, 가축분뇨 처리용 기계·장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각 시·군을 평가해 선정하는 전국 공모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시·군 당 30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번 선정된 시·군 중 영광군, 해남군, 영암군 등 3개 군은 우선 사업자로 뽑혀 사업비 90억원을 지원받는다.

예비 사업자로 선정된 순천시, 화순군, 강진군 등 3개 시·군은 국비 추가 확보에 맞춰 67억원을 투입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악취 개선 대상 농가의 인허가를 올해 안에 추진하고, 내년 시·군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12개 시·도, 47개 시·군이 신청해 서류심사와 현장 발표평가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전남도는 정부 평가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요령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중앙 평가 위원들의 현장 질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최다선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개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내년에도 공모에 철저히 준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한 정 승 인 공 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2 느단 680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김병철 (830616-1552116)
최 후 주 소 : 광주 북구 일곡택지로53번길 12(일곡동)

위 망 김병철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년 7월 4일

공 고 인 : 오매자.
주 소 : 광주 남구 3·1만세운동길 17-2(양림동)
한정승인수리일 : 2022년 6월 29일
공 고 기 간 : 2022. 7. 4 ~ 2022. 9. 4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